

##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 시설들은 노후화가 심각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고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은 242명으로 전체 비율의 98.4%를 차지합니다.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가스폭발 등 2022년에는 11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1967년에 조성돼 각종 시설들의 노후화가 심각해 배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정전 등으로 노동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화학산업단지이자 세계최대의 단일 화학공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사업 등 지속가능성 지원사업이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전을 위협 받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3. 2.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